

왜 사천지진예보를 하지 않았는가?

2008 년 5 월 12 일 오후 2 시 28 분, 사천 문천현에서 8 급지진이 일어났다. 5 월 27 일 중공매체에서는 피해자는 45,612,765 명, 사망자는 67,183 명, 상해자는 361,822 명, 실종자는 20,790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이 특대지진 재해는 왜 예보하지 않았는가? 과학기술이 락후하여 예측하지 못해서인가?

2008 년 4 월 30 일, 중국지구물리학회산하의 사천지질예측위원회에서는 《1 년래(2008 년 5 월부터 2009 년 4 월까지) 사천, 감숙, 청해교제 부근에 6~7 급지진이 일어날 것이니 반드시 주의 해야 한다.》고 중국지질국에 보고했다. 또한 지질전문가들도 3 차례나 《금년 5 월 8 일전후 10 일좌후에 사천, 감숙, 청해일대에 6 급지진이 일어날 것이다.》고 예보했다. 금년 5 월 3 일에 사천아파주일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군중들은 전화로 아파주 방진감재국에 지진 발생에 대해 자문했다. 아파주방진감재국에서는 이것은 “요언날조”이라고 답하고 나서 마얼강현 방진감재국에 《“요언날조”의 근원을 밝히고 요언을 제거하라.》고 강요했다. 사천성중공정부에서는 인터넷에 《“요언날조사건”을 가라앉히라.》는 공고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요언”이 사실로 되었다. 중공이 사천지질예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올림픽직전의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는 명의 하에 고의적으로 지질예보를 덮어감춘 것이다. 1999 년에 중국에서 사스병이 전염되기 시작했을 때도 중공은 역병정황을 이처럼 덮어 감추었다. 중공이 진상을 덮어감추지 않고 제때에 지진예보를 했더라면 충분히 이렇게 막대한 재해를 피면할 수 있었다.

“3 개대표”의 가면구를 쓴 중공은 항진구재(抗震救灾)에서 얻은 성과를 과시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미화하고 있다.

중공이 진정으로 인민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면 왜 미국등 서방국가의 구재입국을 거절했는가? 사천지진이 발생한후 72 시간의 황금구재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나라의 구재입국을 접수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술장비가 선진적인 외국인이 입국하면 중공의 지진구재가 락후하고 무능한 진면모가 탈로날가 두려워서이며 또한 “국가안전”이 위협될가 념려되

어서였다. 중공은 말끝마다 백성의 생명은 가장 귀중하다고 떠들어댔지만 백성들의 죽음은 숫자에 불과했으며 중공의 “위엄”과 “정권”이야말로 인민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텔레비전에서의 방송을 보았는바 저질재료로 대충 지은 문천중소학교 학교건물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져 어린이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지만 튼튼하게 지은 당정사무청사는 조금도 끄덕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윗 사진) 중공은 《어린이는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이다.》고 찬미하고 있지만 기실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금전이익보다 못한 존재였다. 《염황춘추》기재에 따르면 중공은 매년 공금차소비에 4 천억원,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데 3 천억원, 출국소비에 3 천억원, 도합 만억이나 된다. 이 소비의 절반 비용만으로도 어린이들의 학사는 잘 지을수 있지 않았겠는가?

중공악당은 집권 이래 독재통치를 감행하면서 력차정치운동을 일으켜 수천만명의 무고한 인민을 도살했으며 1999 년에 파룬궁을 탄압한 후 무수한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파룬궁학원 생체장기를 적출하여 고가로 팔았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이다.

중공은 이번 항진구재에서 “애민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파룬궁이 지진구재를 방해한다고 날조하고 재민들이 지진예보를 내보내지 않아 발생한 자신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덮어감추려고 인민의 분노를 파룬궁에 돌릴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음모가 해외에서 폭로되었고 멸망의 운명을 만구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중공에서 탈당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여야 한다.

생명의 호신부



나의 친구 황씨는 나한테서 파룬궁진상을 듣고 “3 퇴”(퇴당, 단, 대)한후 파룬따파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녀는 사천으로 유람을 떠나는 남동생에게 그 호신부를 주었다. 남동생은 두 친구와 함께 여관 4 층에서 한창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여관이 무너질때 한 친구는 즉사했고 다른 한 친구는 병원에서 응급치료중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한곳도 상한데가 없었다. 남동생은 집에 돌아온 후 이 신기한 대법의 사실을 집식구들에게 이야 기했다. 집식구들은 대법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모두 “3 퇴”했다.

또 한차례 꾸며낸 중공의 가짜연극



2008 년 5 월 1 일 오후, 전세계중공퇴출봉사센터는 미국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3600 만 중국인들의 중공퇴출을 성원》하는 집회를 거행했다.

(윗 사진) 중국정법위원회 서기 주영강의 지시에 따라 중국특무들이 70 세고령인 중국인퇴직 공정사를 마구 때렸고 현장에서 전화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 습격하고 한사람이 오면 90 원씩 준다고 하였다.

2008 년 5 월 20 일, 주영강의 책동하에 신화인터넷, 중앙텔레비전국제채널에서 뉴욕화인들이 사천재해모금활동에 대해 파룬궁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냈다고 거짓방송했다.

뉴욕 중공영사관 총영사가 폭력을 주도 시인



뉴욕주재총영사 팡극옥(彭克玉)은 전화통화에서 중공영사관이 뉴욕플러싱 탈당중심폭력사건을 주도하고 참여했다고 시인했다.

“파룬궁박해조사국제조직”이 이 전화녹음을 공개하였다. 녹음에서

팡극옥은 이번 포위공격의 핵심은 탈당중심의 봉사자들이 중국공산당의 박해에 항의하고 중공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사천대지진과 재해구제와 전혀 무관하지만 중공영사관원과 그본인이 그날 현장에 있었고 사후에 친 중공해외단체에 소란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했다고 하였다.

관련녹음은 <http://www.zhuichaguoji.org/cn/> 에서.



원한을 품은채 세상 뜬 김영남

도문시대법제자 김영남(金永男)은 2002 년 6 월에 화룡문화파출소 악경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매를 맞았고 그해 7 월에 길림성 9 대음마하로 교소에 압송되어 그는 침대에서 수갑을 채워놓고 40 일동안 시달림을 받았으며 후에 연길시간수소에 전이되어 계속 박해를 받다 그해 7 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2004 년 2 월 4 일 김영남은 도문시 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도문시국보대대 2 층에서 꼬박 6 일동안 굶으면서 밤낮으로 고문당했다. 악경들은 그의 머리에 철갑모를 씌우놓고 두사람이 번갈아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의 머리는 뒹뒹 부어올랐고 온몸은 성한데가 없었으며 옷은 피에 흠뻑 젖었으며 한쪽 다리는 불구가 되었다.

2004 년 10 월 9 대로교소로 압송된 김영남은 “침대펼치기”, “그네뛰기” 등 혹형을 받았지만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영남은 갑자기 피를 토해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로교소에서는 책임질가바 두려워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남은 몸이 점점 악화되어 나중엔 잘수도 먹을수도 없었다. 2008 년 5 월 3 일 김영남은 눈을 감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연변박해소식

■ 화룡시파룬궁학원 김영실(金英实)은 금년 4 월 24 일에 화룡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훈춘시파룬궁학원 박증순(朴增顺)은 금년 5 월 15 일에 학교에서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다 학생들의 고발로 훈춘시국보대대 대대장 왕대순과 악경 조문철에게 체포되었다.

■ 도문시곡수촌파룬궁학원 왕위평(王卫萍)은 금년 5 월 17 일에 월궁파출소 악경 리금우 등 3 명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파룬궁진상재료를 몰수당했다. 그는 지금 도문시간수소에 갇혀있다.

■ 왕청현동진파룬궁학원 손병진(孙秉珍)은 금년 5 월 19 일 오전 8 시경에 동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대법책과 CD, MP3 을 몰수당했다. 그는 지금 왕청현중안간수소에 갇혀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악인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